

제644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0년 1월 15일)

## 태블릿 PC로 보는 전시

박연희, 101호 구석기실 입구 18:00~18:30

여러분은 좋아하는 게임이 있나요? 박물관에서 게임을 한다고 하면 어떤 생각 또는 기분이 드나요? 오늘 여러분은 박물관 전시를 게임으로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태블릿 기기에 담겨있는 9가지 미션을 완료하면 고구려 고분 벽화의 사신도 속 잠든 동물을 깨워 마지막에는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AR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게임은 ‘전시품 이름’을 마커로 인식하면 입체 전시품이 뜨게 되고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전시품마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용도와 의미를 알아가게 됩니다. 새로운 방식의 전시 감상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경험을 생성하는지 발견해 봅시다. 게임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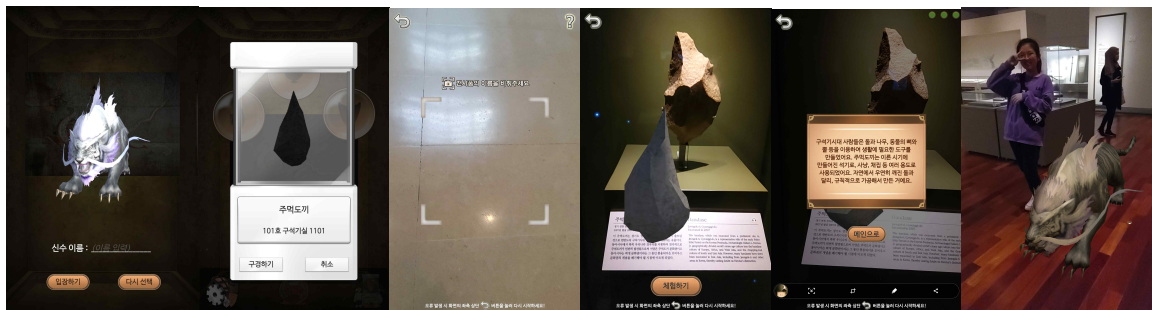


그림 1. 캐릭터 고르기    그림 2. 전시품 찾아가기    그림 3. 마커 인식하기    그림 4. 전시품 탐색, 미션 해결    그림 5. 전시품 해설 읽기    그림 6. 동물과 사진 찍기

전시품 하나를 예로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전시품 위치/전시품명: 신석기실 갈판과 갈돌
- 미션: 도토리를 갈판과 갈돌을 사용하여 갈아보세요.
- 해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도토리 등 야생 식물을 채집해서 먹었어요.  
갈돌과 갈판은 이렇게 채집한 식물의 열매나 재배한 곡물의 껍질을 까거나 갈아서 가루를 만들기 위한 도구였어요.

9가지 모든 미션을 완료한 후, 기존에 전시를 감상했던 경험과 오늘의 경험을 비교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나만의 감상 방법도 나누어 보세요.

제670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0년 1월 15일)

## 특별전 <인간, 물질 그리고 변형-핀란드 디자인 10 000년>(2)

백승미, 특별전시실 18:00~18:30

물질의 형태를 바꿀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인간은 엄청난 변화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속성이 변화된 최초의 물질은 바로 점토였습니다. 물을 섞은 점토는 반죽하여 모양을 빚고, 불에 구워내어 토기로 만들 수 있었으며, 이렇게 탄생한 토기들은 기능적, 상징적 의미를 가진 새로운 사물이 되었습니다. 마치 태아의 모습처럼 보이는 핀란드 점토 소상은 일종의 봉헌물입니다. 숭배의 대상이 되는 아이돌이었지요. 우리나라의 토제 곡옥도 모양, 그리고 봉헌의 기능을 했다는 점에서 두 사물은 매우 닮아 있는 듯 보입니다. 인간 역사에서 나타나는 보편성이 느껴집니다. 또한 인간에게는 웬만한 환경에도 형태나 속성이 바뀌지 않는 물질 또한 중요했습니다. 불변의 물질을 향한 인간의 수많은 노력들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내구성 강한 대표적인 물질 중 하나는 바로 구리입니다. 핵연료 폐기물의 안전한 보관은 인간 사회의 존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리는 바로 핵연료 폐기물을 담는 용기의 충전제로 사용됩니다. 구리를 활용하는 이러한 핵폐기물 처리장은 최소 10만 년의 보관 기간을 두고 설계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물질에 대한 다양한 탐구 속에 인간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아이돌  
점토, 오토쿠푸(Outokumpu), 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 문화  
©핀란드문화재청 고고유물컬렉션



사용후핵연료 폐기물 용기의 충전제  
5cm 두께의 구리, 2014, 포시바(Posiva)사  
©포시바 사

제644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0년 1월 15일)

## 양부일구 - 하늘을 우러러 백성의 시간을 담다

유세롬, 118호 조선2실 19:00~19:30

인류가 최초로 만든 시계는 해시계였습니다. 해시계는 그림자를 만드는 막대기만 있으면 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휴대가 가능할 정도로 작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기계식 시계가 나오기 전까지 다양한 문명권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었습니다.

한국에도 역시 해시계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특히 조선 세종 때 대표적인 해시계인 양부일구(仰釜日晷)에는 백성을 근본에 두는 민본정치를 추구하고자 했던 세종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양부일구는 ‘하늘을 떠받드는 가마솥[仰釜]’과 같이 오목한 모양의 해시계라는 뜻입니다. 전근대시기에 천문, 시간 등을 관장하는 것은 국왕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였기 때문에 천문관측기구나 시계는 왕의 권위를 높이는 상징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양부일구를 백성들이 많이 지나다니던 대로에 설치하고 글을 읽지 못하는 백성들이 시각을 알 수 있도록 12지신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즉, 양부일구는 백성을 위한 공중 시계였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세종 대에 만들어진 양부일구는 현재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17세기 이후 19세기 말까지 제작된 양부일구들은 많이 남아 있어서, 양부일구의 전통이 조선 후기 내내 이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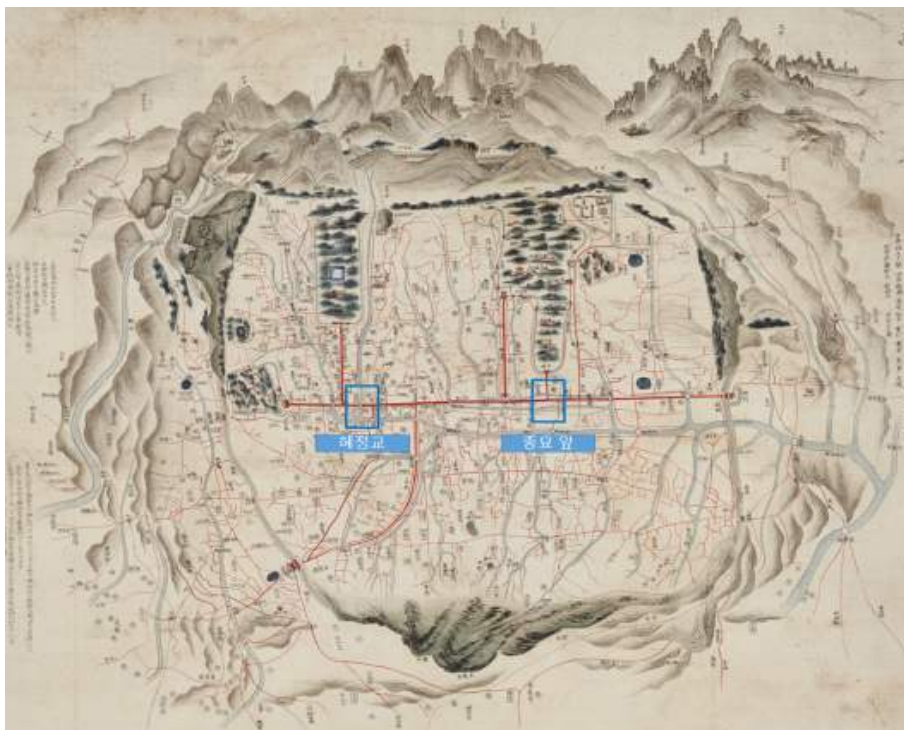


그림1.  
양부일구가 설치된  
해정교와 종묘 앞  
(〈도성도〉, 조선,  
65.5×74.5cm, M113)



양부일구는 관청이나 집, 궁궐 마당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고정형뿐만 아니라 휴대용으로도 발전했습니다. 고종 18년(1881) 강윤姜潤(1830~1898)과 동생 강건姜健(1843~1909) 형제가 만든 휴대용 양부일구가 대표적입니다. 매우 정밀하게 제작된 휴대용 해시계일 뿐만 아니라, 제작자의 이름과 제작 연대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휴대용 양부일구(보물 제852호)는 동생인 강건이 만든 것으로, 세로 5.6cm, 가로 3.4cm, 높이 2cm 정도의 아주 작은 해시계입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을 만한 크기입니다. 회백색 대리석으로 틀을 만들고 안쪽에는 시반면을 오목한 반구형으로 깎아 내어 선을 긋고 청동으로 된 시곗바늘을 세웠습니다. 시반면보다 약간 더 작은 원통형의 면을 파서 나침반도 설치했습니다. 휴대용 해시계는 방향을 정확히 맞추어야 제 시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나침반을 함께 넣어 만든 것입니다. 휴대용 양부일구의 전면에는 ‘양부일구’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양부일구에는 12간지 글자와 함께 30분 간격의 시각선, 13개의 절기선이 새겨져 있고, 양 옆면에는 절기선을 긋고 그 끝에 24절기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나침반에는 24방위가 새겨져 있습니다. 바닥면에는 1871년 4월 하순[同治辛未孟夏下澣]에 진주사람[晉山人] 강건姜健이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강윤, 강건 형제는 당시 최고의 시계 제작자였습니다. 특히 강윤은 고종에게 휴대용 해시계를 제작해 올리기도 했고, 고종에게 재능을 인정받아 고종과 세자의 인장을 만들거나 보수할 때 별감역別監役으로 발탁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아버지인 강이오姜彝五(1788~ ?)는 천문관측기구인 혼천의와 자명종이 결합된 혼천시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강건의 집안이 대대로 시계를 제작했다는 점도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그림2. 휴대용 양부일구(조선, 1871, 세로5.6cm·가로3.4cm·높이2cm, 보물 제852호, 신수15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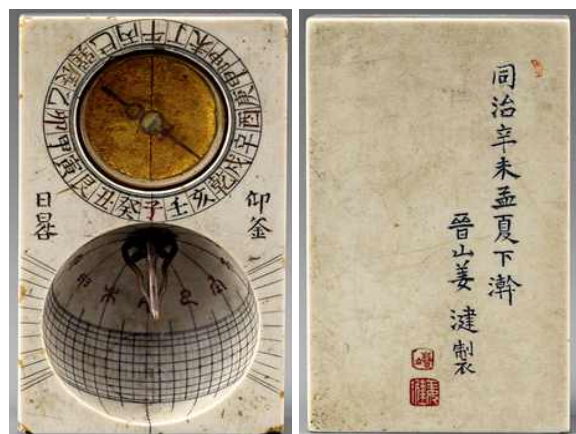


그림3. 휴대용 양부일구의 앞·뒷면

제670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0년 1월 15일)

## 가야의 힘

윤은식, 기획전시실 19:00~19:30

특별전 3부의 주제는 ‘힘’입니다. 전시 부제의 ‘칼’이 상징하는 철의 나라 가야의 힘을 여실이 보여주는 국보 275호 말 탄 무사모양 뿔잔과 철갑옷, 말갑옷, 각종 무구류를 전시하고 가야의 제철 기술을 소개합니다.

42년부터 562년까지, 520년간 가야가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가야의 힘은 무엇보다 철鐵에 있었습니다. 당시 철은 최고의 첨단 소재로서, 철을 다루는 기술은 국력과도 직결되었습니다. 장군들은 철로 만든 갑옷과 칼을 사용했고, 말도 철로 만든 갑옷과 투구를 썼습니다.



말탄 무사모양뿔잔/ 騎馬人物形角杯/ Horn Cup in the Shape of a Warrior on Horseback/ 가야 5~6세기/ 높이 23.3cm/ 국보 제275호/ 국립경주박물관

중장기병重裝騎兵은 말과 기병 모두 철갑옷으로 중무장한 전사를 말합니다. 중장기병의 역할은 주로 적진을 향하여 돌진하여 보병의 대열을 홀트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중장기병은 발걸이에 발을 올리고 안장에 올라타 고삐를 쥐고 달렸습니다. 특히 발걸이는 활을 쏘거나 창이나 칼을 휘두를 때, 안정된 자세를 취하게 해주는 튼튼한 지지대와 같았습니다.

가야 중장기병의 흔적은 함안 마갑총, 고령 지산동 75호 무덤, 합천 옥전 M3호 무덤 등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무덤의 주인공은 왕이나 왕족 같은 높은 신분에 해당하므로 중장기병의 말갖춤이 소유자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실제로 전장을 누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가야 무덤에서 나온 말갑옷과 비늘갑옷은 국력에 직결되었던 제철기술과 군사력이 다른 삼국에 뒤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